

정신지체 중학생의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질적 연구

김 정 언*

조선대학교

백 승 영 · 신 일 근 · 윤 송 이 · 윤 형 준**

조선대학교

양 성 오***

조선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학생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가 인식하는 장벽(가정 차원, 학교 차원, 지역사회 차원), 2) 성공적인 진로 찾기를 위한 역량강화 과제(자녀와 가정 차원, 학교 차원, 지역사회 차원, 정부 차원), 3) 정책적 지원. 본문에서 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였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신지체 중학생의 진로 장벽의 관련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진로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진로, 정신지체 학생, 어머니 인식, 질적 연구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제1저자 : jyoun@chosun.ac.kr)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대학원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대학원(교신저자 : haehwalove@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도 아니면서 성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의 많은 갈등과 도전을 받으면서 상당한 신체적, 심리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속하는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도 일반학생과 동일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이 시기의 장애 청소년들은 학교 졸업 이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령기 동안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신지체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전 생애학습(lifetime learning)으로 묘사되며, 학교를 졸업 후 “그 후 오래오래 행복한” 지역사회 생활로 가게 하는 자연스럽고 적절한 연결을 위해 필요하다(박승희, 박현숙, 박희찬 역, 2006). 학교에서 성인이 된 이후의 독립된 생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애 학생의 전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환교육 서비스의 내용은 생활중심 성과에 초점을 두며, 또한 초중등시기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학교 이후 성인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직업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1항에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은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상황을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성과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고등학교 졸업자 4,489명의 취업률은 44.8%이다. 이는 전공과 진학 및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를 다 포함한 취업률로, 실질적으로는 비고용 상태의 비율이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학교보다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은 더욱 열악하다.

2009년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졸업생 2,641명 중 특수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5.9%(157명), 일반계 고등학교에 64.8%(1,710명), 실업계 고등학교에 28.2%(744명)가 진학하였고 미 진학 미취업자 수는 1.1%(30명)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대부분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나,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하는 곳으로 진학하지 못하기도 하며,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대개 실업계 고등

학교로 진학하며, 학교생활, 학업성취, 일반학생들과의 대인관계 등에서 부적응을 초래하여 중도에 특수학교 고등부로 전학하는 사례도 있어 진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으로 진로·직업교육이 특화되지 못하고, 전공과는 특수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전문계 고등학교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소규모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2010년부터 3년간 매년 10개교씩 공모·지정한다고 발표하여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중학교 시기의 진로 계획은 여가선용, 시민의식,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포함한 성인의 역할을 해 봄으로써 발달하는 시기인 고등학교 시기에 비해,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이며, 일상생활기능, 개인적, 사회적 기능학습, 직업준비 등에서 훈련과 경험을 통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Brolin, 1985). 그러나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이 열약하고 사회의 편견 등으로 인해(박창석, 2003), 스스로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올바른 삶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참여하게 하며, 경제적 안정을 통한 직업적 자립과 재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이상춘, 조인수, 1989).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생태적 접근을 통한 분석과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의 가장 근접한 생태학적 환경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이므로, 각 환경의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이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요소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신지체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가장 핵심적 환경은 가정이며, 가정에서의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은 부모이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더욱 높아지고, 자녀의 학교 졸업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직업의 선택과 유지에 관한 문제에 까지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자녀의 진로 선택, 즉 학교 선택, 전공 선택, 직업 선택 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부모로 조사되는 사회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는 독특한 욕구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향후 학교의 선택, 직업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기 결정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응력에 문제를 가진 정신지체학생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거의 진로를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

지체학생은 지적 능력과 적응능력이 열악하고 성격이나 행동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업생활에 적응하거나 자기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가 어려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평생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보편적인 실정이다(권희자, 1993).

이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장애학생의 초기 적응행동 발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달과정과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함께 배우는 학습자이며,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주기도 한다. 더욱이 장애자녀가 학교 졸업 이후 어떻게 살게 될지 고민해야 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이옥란, 2009). 실제로 한경근(2004)의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부모와 가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유지하였을 때 고등학교 이후의 직업훈련이나 성인으로서 주거의 독립과 사회의 참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녀의 진로에 관한 부모의 관심과 영향력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 및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진로에 관한 의식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있어 일반학생들보다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애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가정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에게 진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진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김용기, 1993)에서는 정신지체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전재일, 박영국, 2006; 황경열, 2005), 지지방안(전혜인, 2007)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이정은, 김정효, 2007),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교사들의 인식과 실행 수준에 관한 것이다(김순애, 2005; 박정은, 2007). 또한 국립특수교육원(1995)의 특수학급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한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진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혜경(1994)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 졸업 후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것보다 직업 훈련원에 보내기를 더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개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를 졸업 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들에 대한 진로의 의미, 진로 장벽, 기대, 희망, 현재의 만족도와 적응 정도, 학교의 진로 관련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직업교육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생각, 직업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중학생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는 무엇인가?
- 둘째,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중학생의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의 진로 장벽은 무엇인가?
- 셋째,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중학생의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 넷째,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중학생의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지도에 있어 학교 및 지역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G지역 중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장애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표현한 내용을 전사하여 기술적인 자료를 수집 한 후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 표집을 위해 전형적인 사례선택 전략(typical-cases selection strategy)을 사용하였다(김윤옥, 2001).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지역 소재의 중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만 13세 ~ 18세의 정신지체 중학생 10명의 어머니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지체 중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생각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어머니들이 주 양육자로서 정신지체 자녀를 양육했고, 일상생활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정보, 요구사항, 어려움들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 자녀의 주 양육자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5 ~ 54세로 평균 40세였으며, 경제적인 수준은 고르게 분포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초사항

연구 참여자					자녀에 대한 정보						
번호	연령	가족관계	경제 수준	맞벌이 유무	성별	나이	학년	장애(급)	학급유형	치료 프로그램	
A	42	부, 모 1남1녀	상	무	여	13	중1	지적장애 3급	통합학급	인지, 학습	
B	43	부, 모 2남	중	유	남	13	중1	지적장애 3급	통합학급	인지, 학습	
C	48	모 1남 1녀	하	무	남	15	중1	지적장애 2급	특수학급	언어	
D	44	부, 모 1남1녀	하	무	남	14	중1	지적장애 2급	특수학급	언어	
E	51	부, 모 1남1녀	하	유	남	16	중3	지적장애 2급	특수학급	없음	
F	46	부, 모 1남	중	유	남	17	중3	발달장애 2급	특수학급	언어	
G	44	부, 모 2남	중	유	남	17	중3	지적장애 1급	특수학급	언어, 수영	
H	38	모 1남	하	무	남	14	중2	지적장애 2급	통합학급	언어	
I	43	부, 모 1남	중	무	남	14	중2	발달장애 2급	통합학급	언어	
J	46	부, 모 2남	중	유	남	15	중3	지적장애 1급	통합학급	없음	

2. 연구 절차

1) 예비면담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위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같은 지역 내의 2개 기관에서 연구 주제에 적절한 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다. 10명의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접촉을 시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과의 개별 면담을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Patton(1990)이 제시한 질문 유형의 6가지 영역 즉, 1) 경험 및 행동에 대한 질문, 2) 의견 및 가치에 대한 질문, 3) 정서에 대한 질문, 4) 지식에 대한 질문, 5) 지각을 추출하기 위한 질문, 6) 배경 및 인구학적인 질문을 고려하여 예비 면담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직업적으로 관련 있는 질문들 외에도 예비면담용 질문에는 어머니와의 라포 형성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간단한 신상정보에 대한 문항, 본 연구의 참여자의 자녀들에 대한 장애 관련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작성된 예비면담용 질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0월 중에 G지역 G대학교 교육센터에 내원중인 재학생의 어머니 2명을 피면접자로 하여 예비면접을 실시한 후 질문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면담 진행방식에 대해 연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표 2>와 같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표 2> 질문지 구성 및 주요 질문 내용

질문의 구성 및 내용	
어머니가 인식하는 개인적인 시각에서의 진로의 의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가 학교를 졸업 한 후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2.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자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4. 어머니의 어떤 점이 자녀의 미래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자녀의 진로계획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인식하는 진로에 대한 계획과 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나 지역사회기관(복지관 등)을 이용하면서 행복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3. 학교나 지역사회기관(복지관 등)을 이용하면서 불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4. 학교나 지역사회기관(복지관 등)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학교나 지역사회기관(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6.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2) 본 면접

본 면접 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이었다. 각각의 참여자 어머니로부터 사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면접의 동기와 목적, 내용, 방법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고, 면접일시를 결정한 다음 1회의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약속된 날짜에 면담에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학교 교실 및 집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에게는 사전에 면담에서 이루어질 질문들에 대해 전화나 안내문을 통해 제공하였다.

면접은 2명의 공동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면접 시 연구자는 준비한 질문을 위주로 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연구 참여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접시간은 평균 약 40분이었다.

면접의 전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음성녹음기(Digital Recorder A7)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각 면담 직후 공동 연구자에 의해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글 2007”을 사용하여 일주일 이내 원래 내용 그대로 전사되었다. 전사 직후 면담을 진행하였던 연구자들이 전사본을 녹음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전사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참여자들에게 추후 면담과정을 거쳐 결과를 정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자간 0, 장평 100으로 작성하였을 때 A4용지 153쪽이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공동 연구자 6인이 완성된 전사본을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6인의 공동 연구자는 함께 미리 정해놓은 일정에 전사된 각각의 전사본을 읽으며 개방적 코딩을 실시하였다. 전사본에 대해 임의로 일련번호(예, 2:14-21 등)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면서 부여한 코드 및 조작적 정의를 적으며 임시 부호집을 각자 작성한 후, 임시 부호 집에 수록된 코드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동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첫 번째 부호 집을 완성하였다. 첫 번째 부호집이 완성된 후에는 6인의 연구자는 각각 두 번째 피면접자와 면접내용을 전사한 다음 첫 번째 부호 집을 이용하여 전사본을 코딩하였다. 그 다음 독립적으로 코딩한 자료는 다시 모임을 통해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코드나, 의미상 분리되어야 할 코드, 혹은 통합되어야 할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논의 하여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부호 집을 완성하였다. 새로운 코드가 등장했을 때는 이전 전사본으로 돌아가 다시 확인하여 코딩이 필요한 것은 재코딩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모든 전사본의 코딩과 연구자 모임을 마친 후 전체 3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 “생명의 줄(life line)”이라고 불리는 지지집단에 참여하는 6인의 연구자들은 연구자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기제의 역할을 담당하며 (Lincoln & Guba, 1985), 연구의 전 과정의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정직성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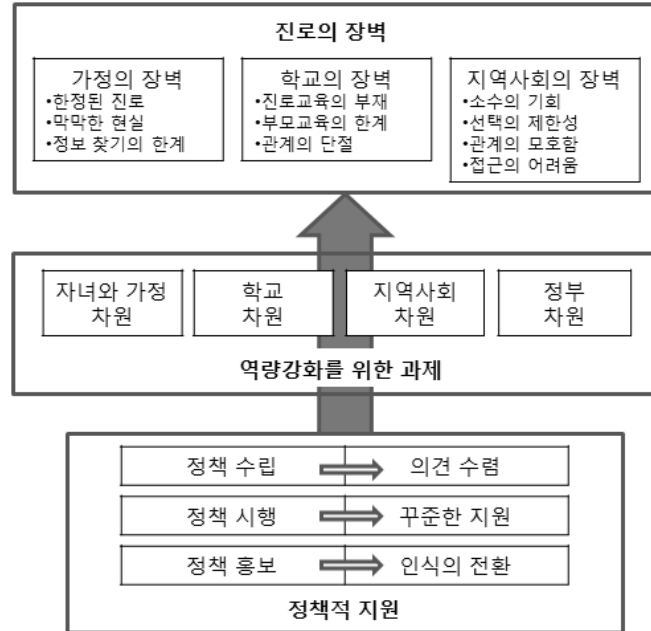
둘째, 전사본을 분석함에 있어서 6인의 공동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코딩을 하되 같은 관점으로 보다 일관성 있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부호집의 개발과정에서 추가의 독립적인 코딩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딩 결과를 확인하고 동료검토를 실시하여 최대한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과정(member check)을 통해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나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나 각각의 의견들의 통합된 과정을 확인하였고, 시각의 차이로 인해 범할 수 있는 해석의 오류를 점검하였다. 추후 확인면담은 10명의 참여자에게 요약된 해석과 결과론을 면담참여자들에게 발송하고 직접 면담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추후 확인 면담에서의 질문은 1) 본인의 견해가 잘 반영되었는가? 2) 중요한 요점이 빠지지 않았는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0명 모두 결론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었으며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참여자 스스로에 대한 성찰 및 소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수집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 결과

정신지체를 가진 중학생의 어머니들과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3개의 대주제와 10개의 소주제로 범주화 되었다; 첫째,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자녀에 진로에 대한 장벽(가정 차원, 학교 차원, 지역사회 차원), 둘째, 성공적인 진로 찾기를 위한 역량강화 과제(자녀와 가정 차원, 학교 차원, 지역사회 차원, 정부 차원), 셋째, 정책적 지원. 분석 결과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신지체학생의 진로에 관한 주변 상황 및 해결 과제

1. 가정에서의 장벽

1) 한정된 진로

정신지체 중학생의 진로를 위한 가족의 계획과 희망은 크게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진로 계획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학 및 직업에 관한 희망으로 크게 구분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계획으로는 주로 학교의 선택, 즉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 문계 고등학교의 진학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장래의 직업이나 학생의 적성과 학교가 접목이 될 때는 더 많은 선택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이후의 진학에 대해서는 직업에 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학이나 전문학교, 직업 전문 학원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경우와 막연히 학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 또는 막연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상급학교 또는 직업준비기관의 입학을 고려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가 성장 후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어머니들의 희망은 단순직업, 자영업, 농업, 복지기관에서의 종사 등을 언급하였고, 자녀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을 위해 고심하였으며, 자립 생활

을 대비한 생산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처음에는 공고 쪽을 생각해 봤어요, 아바 말대로 용접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배워 놓으면 써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 심성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애견이나 원예 이런 쪽이 ○○이 심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1:2-6)

고등학교도 선생님 말씀을 하신 것에 참고해 가지고 여기 중학교에 들어올 때에는 사실 ○○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엄마목심만 차리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편에서 ○○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학교로 골라봐야지.....(9: 14-16)

모든 것을 다양하게 배우서, 하나라도 똑바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공과에서 빵 같은 것 한다든지 어디 가서 단순한 조립을 좀 할 수 있다든지 회사에 나가서 그런 단순한 일을 좀 한다든지 그게 바람이거든요.(10:8-10)

2) 막막한 현실

가정 내에서 정신지체학생의 진로에 관한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는 정신지체학생 본인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정신지체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관한 장애물로는 크게 성격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를 어머니들은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둘째, 부모의 문제로는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에 관한 양육 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자녀의 문제행동의 이해와 통제의 부족, 진로 관련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정신지체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이나 진로로 연결될 만한 흥미나 여가 활동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고 대부분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단순한 여가활동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 성장 속도가 빠른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의 진로에 있어 부모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 비중이 과다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되는데, 특히 자녀의 진로에 관한 판단력의 부족, 양육에 있어 안일한 태도, 자녀의 진로에 관한 부부의 의견 차이, 아버지의 역할 미비, 양육 협조자의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부모의 판단력 부족으로는 자녀의 진로에 어떠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래의 준비나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부모의 입장에서 정신지체자

34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1권 2호)

녀의 양육에 대한 피로감, 현실적인 안주 등의 양육에 대한 안일한 태도도 스스로 느끼고 자책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없고 겨우 하는 것이 그래도 요즘은 친구들 하고 컴퓨터에서 만나서 게임이라도 하기는 해요, 거의 없어요, 요즘 친구들은 같이 야구하고 영화도 보고 하는 데 ○○이는 생각하다가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엄마 나 할까 하다 망설이고 그러다 친구는 다 가버리고 그래요,(9:8-12)

우리는 부족한 부모라서,, 그냥 막연히 걱정하고,,,, 사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3:55-56)

솔직히 아이를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가운데 키우면서 솔직히 아빠는 인제 돈만 벌 어다주는 입장이고 양육에 신경을 안 쓰고 거의 다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애기가 4 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그런 시기를 8 개월을 보냈거든요, 그때부터 별로 삶의 의욕이 없어졌어요,(2:28-32)

아이 아빠는 별다른 학교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직업도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 겠고 애네 아빠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은 내가 항상 끼고 있겠다, 학교, 고등학교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다른 엄마들 보면 그런 게 조금 부럽고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2:45-47)

셋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양육 및 교육에 있어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로는 부모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어려움, 부모가 정신지체 자녀의 양육 도중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 막연한 걱정 및 현실적인 벽에 의해 나타나는 절망감 등으로 나타났다.

아들과의 싸움 날마다 싸우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하고 한번 씩 싸우고 나면 ○○이는 저한테 스트레스를 푸는데 저는 풀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 한테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싸우게 되고 저는 어디에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9:34-36)

넷째,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도 진로교육에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상당히

큰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커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를 시킬 때 하나라도 더 나은데서 가르치고 싶고, 우리 애들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그런가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걱정이 되죠, 지금도 돈은 많이 들어가요.(1:75-79)

뭐 혼자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가, 이제 엄마의 입장이고 또 가장이니까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니까 많이 못 해주는 거,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 해줘서 미안한 것 이런 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많이 못 해주는 거.(9:53-56)

3) 정보 찾기의 한계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경로나 정보수집의 방법 등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힘들어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진로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하는 경로로는 주변 학부모, 학부모 단체 가입, 진로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 대중 매체(신문, 인터넷, 책, 영화 등) 그리고 학교 교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어려운 경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어머니들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은 학교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에서의 진로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결정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이였다고 답하였다. 어머니들은 특수교육교사의 진로에 관한 정보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정보 부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회고하였다.

정말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말 어디서 내가 들어가 될지 어디서 알아야 될지, 그럴 때마다 자꾸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든 거 같아요.(6:132-140)

제가 나름대로 또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 전남, 광주사이트 전북까지 또 크게는 저기 경기도 쪽에 아무래도 지방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정보 사이트를 많이 찾았어요.(8:35-38)

진로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의 안 했고요, 6학년 원적학급에서 특수학급 넣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1:107-108)

초등학교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전혀 초등학교 때는 학교도 제가 알아봐 가지고 원서 써서 담당 선생님께 가지고 가니까 담임선생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몰랐던 거 같아요,(9:87-89)

2. 학교에서의 장벽

1) 진로교육의 부재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활동들은 대부분 없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별로 만족하지는 못해요, 직업시간이라고 해도 말 들어 보면 학교마다 별 특징도 없고,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하기에 선생님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하니까,(1:152-154)

학교에서 진로를 위한 교육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예나 제방을 하지만 그것이 전문성도 별로인 것 같고 시간 때우기 식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요,(3:124-126)

도움 반에서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애 진로와는 별다른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뭐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주는 어렵겠지만……(5:86-88)

2) 부모 교육의 한계

주로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 시 상담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중학교에서의 교사와의 상담은 학생의 특정 진로나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에 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현장에서의 부모 상담은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교사와의 진로에 관한 상담의 양과 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때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진로에 관한 학부모 교육역시 대부분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진로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학부모들끼리 주고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장애인 부모회, 그 모임에 가면 이제 거의 저학년 엄마들이랑 고학년엄마들이랑 앉는 자리가 틀려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중학교 다니는 엄마들한테 뭐라도 한번 물어보죠, 거기서 엄마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거지 학교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거의 0퍼센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6:94-100)

3) 관계의 단절

교사와 학부모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은 자녀들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학부모와 교사간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고 자녀의 진로 선택의 시기를 놓치게 됨을 지적하였다. 주로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특수학급으로의 입급 시기를 놓치는 등 담임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는 도움 반에 보내야 할 거 같아요,"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는 도움반의 수준이 너무 낮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래요, 지적인 수준을 말씀하신 거죠, 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 하는 거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늦어 버렸죠, 더 일찍 왔으면 나아졌을 텐데,(5:70-75)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학교도 옮겼고, 또 ○○이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 너무 막혀 있다고, 너무 단절되어 있어요,(6:117-123)

네, 포래들하고 너무 원만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한번만 더 생각했으면, 6학년 때라도 옮겼으면, 했지만 담임선생님이 특수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너무 모르세요, 그냥 ○○이가 공부 좀 못하고, 친구랑 어울리는 것이 좀 그렇지, 부모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된다고 하면서,(5:79-83)

3. 지역사회의 장벽

1) 소수의 기회

진로와 관련한 지역사회에서의 가장 큰 장벽은 프로그램의 양적인 부족으로 인한 선택이 어렵다는 점이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육시킬 지역사회기관의 교사가 부족하며, 장애청소년을 전담할 지역사회기관이 부족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조차 부족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도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세니까, 10명 뽑는데 50명이 왔다, 그럼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너무 부족해요, 일반 복지관에서 못한다면 다른 학원에 서라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5:194-196)

2) 선택의 제한성

진로와 관련한 지역사회기관의 프로그램에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의 선택의 폭이 적다는 점, 둘째, 직업이나 진로와 직접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적은 점, 셋째, 장애학생의 능력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문제, 넷째, 꾸준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수아동들을 이해할 만한 도움주실 선생님들이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움주실 선생님들이 모두 자격이 있을게 아니잖아요, 그 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양하질 않아요.(5:38-42)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야 할 것 꾸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니까, 계획이 자주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원이 끊겨서 안 되는 거 있고, 꾸준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끝까지 난이도 올라가면서 이어지면 좋겠어요.(1:155-158)

미리 가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게 맞는 것인지, 나는 좋아서 보냈는데 ○○에게는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6:250-255)

3) 관계의 모호함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자녀가 1회 이상 지역사회 기관의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지역사회기관의 종사자들과 자녀의 진로나 장래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도 부족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데, ○○는 할 수 있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복지관에서조차도 차단을 하니깐,(5:181-184)

그런 것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의 문제도 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또 나는 내 아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6:261-263)

4) 접근의 어려움

지역사회기관의 프로그램이나 교사에 대한 문제 외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역사회기관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동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저희는 같이 맞벌이를 직장을 다니니까 에 누구한테 이렇게 어떤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도우미도 적절히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8:64-67)

4.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1) 자녀와 가정 차원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가족이 지녀야 할 역할과 능력으로는 자녀의 진로를 위해 끊임없이 자녀를 이끌 수 있는 부모의 강인한 성격과 경제력, 그리고 정보력을 지목하고 있었고 부모의 균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엄마의 첫 번째 자질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애를 엄마가 이겨야 한다는 것, 그래야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엄마가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 않는 거, 엄마의 기준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 엄마들의 입에 휘둘리지 않는 거.(1:47-50)

아빠의 역할도 중요해요, 엄마가 모든 걸 해 줄 수 는 없잖아요, 운동을 시킨다든지, 아이가 반항할 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런 거 많이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죠, 엄마가 하는 것과 아빠가 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아요.(1:67-70)

어머니들은 자녀가 자신의 진로 개척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성격적인 면으로는 인내심과 끈기, 원만한 사회성 및 대인관계,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 기술과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민첩한 행동, 다양한 소질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체력, 건강, 의사소통능력, 인지능력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가정에서의 지도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좀 더 강화되고 연계되어 지도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자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성공적인 진로의 시발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일단 끈기하고요, 그리고 참을성, 그리고 사회성,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지내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체력적으로 가장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학교에서 아프면 조퇴를 할 수 있지만 회사는 매번 조퇴를 할 수 없잖아요, 가장 걱정이 되죠, 욕심을 못 내겠어요, 솔직히.(2:85-91)

특별히 뭘 한다는 것은 없고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니까 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구요, 많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램 만 가지고 있죠.(9:21-23)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적성이 조금은 나타났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 쉬울 것 같아……(3:106-107)

내 후년에 갈 학교죠, 일단 하나가 성공해야, 학교서부터 성공을 해야 자라서도 성공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안 되죠, 가장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것도 학교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학교죠, 학교를 안 본고 다른데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 가서도 적응을 하 거고, ○○이가 혼자 친구를 만들거나 할 일은 없

니까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1:209-215)

2) 학교 차원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자녀의 진로를 위해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진로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학부모 교육의 제공을 언급했다.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급학교 특수학급의 운영체제, 교사에 대한 정보, 학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또한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같은 큰 단위의 교육 보다는 학교단위의 교육을 통해 세세하고 교사와 학부모간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양육에 대한 조언이 가능한 학부모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교육청에서의 학부모교육은 학교단위의 교육보다는 광범위하고 전체 학생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소개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좀 더 체계적으로 엄마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네트워크가 있거나 이런, 이런 학교가 있다, 이런,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거 알려주면 좋죠,(1:142-145).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학교에서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학부모를 모아서 정보도 주고 교육에 관해서 교육이 필요해요,(1:116-117)

학교에서 정신지체학생의 진로를 위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것들로는 학생의 소질개발, 학교졸업 후에 직업과 직접 연계되는 교육,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기초학습, 사항이 담긴 훈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인의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 공부라고 할까……, 본인이 성실해야 될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인 공부 최소한 기초는 있어야 하니까, (1:155-158)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적성이 조금은 나타났으면 좋았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필요하죠,(3:106-107)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이 좀 돼야 하는데, 그게 안돼요, 일반 통합반하고 섞여서 수업을 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5:105-109)

3) 지역사회 차원

지역사회기관에서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사회성 관련 교육,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적합한 프로그램의 사전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야외 프로그램 등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세 명의 어머니의 경우는 단순한 기술 직이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간단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원하였다(5:83).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 중에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기관에서 꾸준히 일주일 내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201-203). 일부 어머니들은 업무적인 일 외에 장애학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지 못함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이 자체만을 볼 때는 ○○이 사회성,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거니까 말하는 능력이나 사회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좀 가르쳤으면, 지갑 분실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1:171-176)

○○같은 프로그램도 좋긴 한데 좀 더 그 위 단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학원 말고 그런 애들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제과, 제빵 같은 것,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 이외에 그런 교육기관에서……, 그런 데가 전혀 없어요.(3:195-198)

4) 정부 차원

정부의 장애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정책시행에 따른 과제로 어머니들이 바라는 내용은 첫째,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더 많은 배려를 원하고 있었고, 둘째, 시설의 확충 및 인력의 확충, 그리고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고 꾸준한 운영을 바라고 있었다.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이는 못되더라도 선진국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교사가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히 교육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를 바랄뿐이죠, 아니면 두 세 명이라도 소수 그룹에 맞는 어떤 교육

을 한다든가 교육기관이 좀 많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8:169-178)

5. 정책적 지원

1) 정책 수립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 중 졸업 후 성인기 이후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계획되기를 희망하였다. 자녀의 학령기가 3년 정도는 남아 있으나 졸업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정신지체 학생의 진로에 있어 교육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함을 아쉬운 점을 지적하였다.

잘 알려주지 않는 거 같아요, 어느 학교나 다, 그래도 많이 궁금하고 엄마들이 좋다고 하면 솔직히 교육청에 전화해서 여쭙보기도 하고, 장학사님한테 여쭙어 보고하기도 해요, 그래도 별로 시원한 대답은 못 들어 봤어요, 장학사님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1:24-31)

2) 정책 시행

어머니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지원의 부족함과 함께 한번 시행된 지원정책이 꾸준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는데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야 할 것 꾸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니까, 계획이 자주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원이 끊겨서 안 되는 거 있고, 그런가, 꾸준한 거 복지시설은 자주 바뀌더라고요, 꾸준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끝까지 난이도 올라가면서 이어지면 좋겠어요.(1:155-158)

요즘 거의 인터넷, 등사무소에 들어가서 한다거나 등사무소에서 물어보면 알려주고 사회 복지과에서, 거기에서도 심지어 정책이 너무 잘 바뀌니까 이게 거의 지금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시는 분만 아시니까 자기네들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회 복지과에서 심지어 근무하시는 분들도.(2:67-73)

3) 정책 홍보

어머니들이 정부의 장애학생의 진로에 관한 정책에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정보의 수요자인 어머니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거나 한정된 경우를 들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국가 시책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정보의 획득자체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등 정보제공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 반의 ○○아버님은 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귀뜸을 해주시면 우리는 뒤늦게 알고 막 인제 쫓아가서 알아보면 해당사항이 안되고 이미 다 차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2:57-60)

복지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좀 연락을 해줬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정말 거의 선착순이니까, 애들은 너무 많고 인원수는 모집인원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2:101-104)

IV. 결론 및 논의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정인지체 학생의 어머니들이 인식한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의미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인지체장애를 가진 중학생의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의 진로 장벽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모두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정인지체학생의 진로에 관한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는 학생의 장애로 인한 문제, 부모의 문제, 부모의 심리·정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자녀의 문제행동 등의 성격적인 문제, 진로 관련 학습 면의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부모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자녀의 진로에 관한 판단력의 부족, 양육에 있어 안일한 태도, 자녀의 진로에 관한 부부의 의견차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분배의 어려움, 아버지의 역할 미비, 양육 협조의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자녀의 진로에 관해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도 진로교육에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상당히 큰 부분으로 경제적 어

려움을 지적하고 있었다.

부모가 인식한 정신지체 학생 자녀에 대한 학교에서의 진로 장벽은 교사와의 협력과 학년 간 연계성 부재, 교육활동에 대한 부모 참여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다. 진로를 위한 학교에서의 여러 활동 면에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현재 중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활동들은 대부분 없거나 미흡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시 상담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 과정에서의 전환을 위해 가능한 일찍 시작해야 한다(Clark, Field, Patton, Brolin, & Sitlington, 1994).

부모가 인식한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장벽은 프로그램의 부재와 관련 전문가들의 부정적 인식 및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기관에서 정확히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녀의 미래를 대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지역사회기관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으나, 모든 어머니들이 프로그램 운영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정신지체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육시킬 지역사회기관의 부족, 전담 교사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직업이나 진로와 직접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적고, 장애학생의 능력과 상관없이 진행되며, 꾸준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둘째, 정신지체학생의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진로 계획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진로 계획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학 및 직업에 관한 것으로 크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계획으로는 주로 학교의 선택, 즉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장애의 직업이나 학생의 적성이 학교의 선택과 접목이 될 때는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장 후 갖게 될 직업에 대한 희망은 단순직업, 자영업, 농업, 복지기관에서의 종사 등에 대한 희망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진로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하는 경로로는 주변 학부모, 학부모 단체 가입, 진로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 대중 매체(신문, 인터넷, 책, 영화 등)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지만 정보수집에 있어 정보수집의 경로나 정보수집의 장소 등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정신지체학생의 진로 장벽을 없애기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진로를 위해 끊임없이 자녀를 이끌 수 있는 부모의 강인한 체력과 건강, 경제력, 역할 분담, 그리고 정보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 집중력, 원만한 사회성 및 대인관계 등의 사회 정서적인 측면과 의사소통적인 측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진로에 관한 정보와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접근하기 어려운 상급학교 특수학급의 운영체제, 교사에 대한 정보, 학교의 특성에 대한 정보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모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있는 선배 정신지체학생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간접체험의 기회 등도 효과적이다. 또한 학부모 교육은 교육청과 같은 큰 단위의 교육 보다는 학교단위의 교육을 통해 부모 요구에 적절한 주제와 방법으로 교사와 학부모간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실행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양육에 대한 조언이 제공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정신지체학생의 성공적 진로를 위해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것들은 학생의 소질개발, 학교 졸업 후에 직업과 직접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김호연, 2005),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기초학습 및 경험의 제공(장우희, 2005) 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기관의 과제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사회성 관련 교육,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적합한 프로그램의 사전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야외 프로그램 등의 실시와 자녀들을 보살핌에 있어 사랑과 좀 더 세밀한 지도를 요구하였다. 정부의 과제로는 어머니들이 바라는 장애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시책으로써 첫째,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더 많은 배려를 원하고 있었고, 둘째, 시설의 확충 및 인력의 확충,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꾸준한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서 정신지체학생의 진로 장벽을 없앨 수 있는 정보의 지원 정책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장애학생의 진로에 관한 정책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국가 시책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과 체계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인 어머니들에게 전달되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상과 현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참여한 어머니들 개개인이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접할 수 있었으나 적은 수의 사례를 포함한 질적 연구이므로 지역적 분포가 제한적이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참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시각만을 분석한 연구로서 추후에는 성공적인 진로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인식과 장벽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증거 기반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의 실행 현황과 성과 중심의 분석과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지체 중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의 모형과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관련 서비스 지원과 연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 (1995). 특수학급 운영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 권희자 (1993). 정신지체아의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의식 비교. 대구대학교.
- 김순애 (200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부모의 전환교육 인식 조사.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기 (1993).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윤옥 (2001).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과 설계**. 서울: 문음사.
- 김호연 (2005). 미국 전환교육의 실제. **특수교육연구**, 12(2), 243-264.
- 박정은 (2007). 고등부 특수학급의 교사들의 전환교육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교.
- 박창석 (2003). 정신지체아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분석. 대구대학교.
- 류애숙 (2000).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실태 분석 연구: 인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승희 (2000).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윤태성, 유애란 (2008). 충남 중등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태 및 개선 방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17-41.
- 이상춘, 조인수 (1989). 정신지체아의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서울: 도서출판특수교육.
- 이옥란 (2009). 충남 초등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진로준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조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이정은, 김정효 (2007).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한국직업재활학회**, 17(1), 147-174.
- 장우희 (2005).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전환교육 실행수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재일, 박영국 (2006). 정신지체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4(2), 381-404.
- 전혜인 (2007). 정신지체 특수학교 재학생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가족지원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정서 행동장애연구**, 23(1), 265-285.
- 조인수 (2000). 장애인의 전환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한경근 (2004). 중등기 이후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형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50(1), 21-45.

- 한혜경 (1994). 중학교 특수학급의 진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혜경 (1995).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경열 (2005). 동, 서양의 심리치료: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도정신지체아동의 자기결정력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8(2), 151-163.
- Clark, G. M., Field, S., Patton, J., Brolin, D., & Sitlington, P. L. (1994). Life skills instruction: A necessary component for al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Position Statement of the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 125-134.
- Kokaska, C. J., & Borlin, D. E. (1985). *Career education for handicapped individuals*.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others who have middle schools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bout the Career: A Qualitative Inquiry

Kim, Jeongyoun

Chosun University

Baek, Seung Young

Chosun University

Shin, Il Geun

Chosun University

Yun, Song Ei

Chosun University

Yun, Hyung Jun

Chosun University

Yang, Sung Oh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reer barriers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attended general middle schools. Interviews with 10 mother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others' experiences with their stud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ree themes emerged from qualitative analysis: (1) the impact of student's career barriers (2) the task of empowerment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3) the support needed for raising stud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s for stud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provided.

Key Words

: caree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other' s Perception, qualitative inquiry

논문 접수: 2010. 05. 05 심사 시작: 2010. 05. 10 게재 확정: 2010. 06. 16

